http://doi.org/10.34227/tjocc.2023..29.331

한류 콘텐츠의 여성보편주의*
- 드라마와 케이팝을 중심으로 -

장원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여성보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한류 콘텐츠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보편주의는 문화콘텐츠에서 표현되는 합리적면서 공감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서구의 백인남성 보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서구 대중문화에서는 백인남성을 인류를 대표하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집단으로 표현하는 데 반하여, 한류 콘텐츠에서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지혜, 용기와 공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과정에서 프로이드와 버틀러 등에 의해 제시되었던 멜랑콜리아의 개념을 한류의 확산을 설명하는데 적용해서, 전 세계 여성팬들이 한류 소비를 통해 이러한 멜랑콜리아를 해소하고 극복하고 있고, 이것이 한류 확산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한류의 확산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여성보편주의의 모습을 드라마와 케이팝을 중심으로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여성보편주의가 한류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가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의 한국한 연구가 외국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연구가 제시하는 여성보편주의는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한 개념이 서구 및 국제 학계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여성보편주의, 한류, 멜랑콜리아, 케이팝, 드라마, 한국학

---

* 이 논문은 202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접수일(2023년 11월 22일), 수정일(2023년 12월 14일), 게재 확정일(2023년 12월 14일)

I. 머리말

케이팝과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21세기 한국 문화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 할 수 있다. 한류의 시작과 성공에 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류는 또한 기존의 한국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존의 한국학 연구는 대체로 서구의 이론이나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류에 관한 초기의 분석도 기존의 한국학 연구의 맥락과 일치하는 점이 많았다. 문화적 근접성 이론, 또는 혼종 문화 이론 등으로 한류의 성공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러하다.[1] 하지만, 한류의 성공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나타났다. 특히 한류의 팬들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무언가 새로운 설명이 필요하다.[2] 예를 들어 케이팝 아이돌이 모두 남성 그룹이라든지, 한국 드라마의 인기 배우들이 모두 남성이었다면, 압도적인 한류 여성 팬덤이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녀시대부터 블랙핑크에 이르기까지 케이팝의 세계적 전파에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높은 인기가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의 여성 캐릭터들, 예를 들어 〈대장금〉의 이영애,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 〈태양의 후예〉에서의 송혜교, 〈사랑의 불시착〉의 손예진 등의 인기는 그 드라마의 전 세계적 흥행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점에서 한류의 여성 아이돌 그룹과 드라마 스타들의 여성 팬덤에 관한 새로운 설

---

1) 장원호·김익기·송정은, 『한류와 아시아 팝 문화의 변동』, 푸른길, 2014, 15-18쪽; Shim, Doobo,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1), 2006, p. 20.

2) 예를 들어 케이팝의 경우, 2021년에 미국 케이팝 앱 서비스 회사인 the Qoos의 조사에 따르면 케이팝 팬의 92-4%가 여성이고 남성 팬은 단지 6~8%에 불과했다(「美 'K팝 팬덤' 92%가 여성·만13세…첫 대면 통로는 음악 스트리밍」, 『해럴드경제』, 2021년 2월 3일자). 또한, 드라마를 포함한 한류 팬덤의 경우에도, KBS World TV의 페이스북 구독자 중 86%가 여성이라는 점을 볼 때 한류 팬들 중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http://www.facebook.com/kbsworld, 2017.05.06.~11.06 총계 자료).

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류 팬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성보편주의(Female Universalism)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여성보편주의는 전통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문화의 사슬을 끊으려는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보편주의는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성보편주의는, 페미니즘처럼 보편적인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서구의 문화콘텐츠에서 표현되고 있는 백인남성보편주의(white male universalism)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 한정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서구 문화콘텐츠의 백인남성보편주의는 백인 남성을 합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인류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즉, 세계를 구하는 영웅은 슈퍼맨이나 배트맨,이고, 지혜롭고 합리적인 형사나 탐정은 콜롬보나 셜록 홈즈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류 콘텐츠에서는 여성의 완성된 미 또는 한계를 극복하는 여성의 용기와 도덕성 등이 주류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여성보편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러한 여성보편주의가 전 세계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멜랑콜리아[3]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고, 이것이 한류의 세계적 확산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다. 먼저 여성보편주의의 개념을 멜랑콜리아와 연결시켜 정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류가 어떻게 멜랑콜리아와 연결되고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대표되는 한류의 주류 콘텐츠에서

---

3) 멜랑콜리아를 간단히 설명하면, 누군가를 잃었지만, 그 상실감을 애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Butler, 2010).

표현되고 있는 여성보편주의를 초기, 중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기별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여성보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한류 연구, 더 나아가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II. 여성보편주의와 한류 콘텐츠

일반적인 의미에서 여성 보편주의는 전 세계 여성들이 가부장적, 남성 지배적인 문화의 사슬을 끊으려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유교, 가톨릭, 이슬람교의 남성 지배적인 문화에서 여성에게 강요되는 구속을 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성보편주의는 문화콘텐츠에 제한된 개념으로, 서구의 대중문화에서 표현되고 있는 백인남성보편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백인남성보편주의는 만화, TV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문화에서 반복적으로 개발되고 제시되어 왔는데, 백인 남성이 어떤 인종보다 문화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영국의 셜록 홈즈, 미국의 슈퍼맨과 배트맨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인 남성보편주의는 대중문화의 글로벌화에 맞추어 전 세계로 수출되어 유사한 문화 아이콘들을 만들어 냈다.[5] 2017년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지만,[6] 여전히 서구의 문화 콘텐츠에서는 남성보편주의적인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

4) Oh, Ingyu and Wonho, Jang, "From globalization to glocalization: Configuring Korean pop culture to meet glocal demands", *Culture and Empathy* 3(1-2), 2020, pp. 26-27.

5) 일본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경찰 드라마 〈아이보(파트너)〉가 그 대표적 예이다.

6) Luo Hong and Laurina Zhang, "Scandal, Social Movement, and Change: Evidence from #me too in Hollywood", *Management Science* 68(2), 2020, pp. 1285-1286.

여성은 남성 영웅의 수동적인 조력자로 묘사되는 것이 사실이다.[7)]

이에 반해 한류 콘텐츠의 여성보편주의는 여성의 지혜, 용기, 그리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서구의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표현되고 있는 페미니즘적인 여성상은 주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의식 있는 운동가, 또는 남성에 적대적인 히어로의 모습을 주로 보이는 반면, 한류 여성보편주의의 주인공은 다양한 젠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과 사회 정의에 관한 신념도 매우 다양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을 극복하고, 도덕성과 정의감을 보이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표 1〉은 미디어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백인남성 보편주의와 여성보편주의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백인남성보편주의 vs 여성보편주의

	백인남성보편주의	여성보편주의
행위자	백인 남성	한국 여성
메시지	백인 남성의 합리성, 과학적 원칙, 매너, 정의감, 등등	차별을 극복하고 성공에의 헌신, 꿈의 다양성, 도덕성과 사회적 정의감, 지혜와 공감, 등등
아이콘	슈퍼맨, 배트맨, 인디아나 존스, 제임스본드, 셜록 홈즈	대장금, 김삼순, 도봉순, 우영우, 블랙핑크

출처: Oh, Lim, and Jang (2023)

한류 드라마에서는 과거 백인남성보편주의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합리성과 과학적 추론, 정의감 등이 여주인공에 의해 표현된다. 한류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은 변호사, 검사, 정치인, 의사, 예술가 및 경제적 성공을

7) 미국에서도 기존의 여성의 성을 강조하거나 로맨스 위주의 서술보다는 적극적인 여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출현했지만, 대부분 백인남성보편주의 히어로물의 주인공처럼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감이 떨어지고 사회적 메시지가 약하다(김미라, 2021).

이루어 내는 실업가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서도 드라마에서의 한국 여성들은 남성지배적인 억압적 가치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자유롭고 포용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런 점에서, 한류 드라마의 여성 보편주의는, 고전적인 유교, 가톨릭교 및 이슬람과 같은 남성 지배적인 공동체의 사슬을 풀고, 사회나 국가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전 세계 모든 여성들과 공유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케이팝에서의 여성보편주의는 아이돌 그룹들의 외모적 특징에서 드러난다. 먼저, 한국의 여성 아이돌 그룹은 일반적으로 키가 크고 여성성보다는 보편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또한 그들은 여성적 춤을 넘어서 과격하고 남성적인 춤도 보여준다. 즉, 그들은 기존의 여성이라는 관념적 굴레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다. 케이팝 남성 아이돌 그룹의 특징은 양성적 미(androgenous beauty)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케이팝 남성 그룹의 미소년 이미지와 남성적 신체 외모는, 기존의 일반적인 남성상이 아닌, 여성이 희망하는 남성상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케이팝 남성 아이돌 그룹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는, 여성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남성상을 제시하고 이것이 전 세계 여성 팬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류 콘텐츠의 여성보편주의가 어떻게 전 세계 여성 팬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글로벌 사회에서 여성들이 느껴 왔던 멜랑콜리아가 확대되고 공유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버틀러는 멜랑콜리아를 누군가를 잃음으로 인한 슬픔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감정으로 정의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자매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을 잃고 슬피 울 수 없다는 사실에서 발생하는 젠더 멜랑콜리아를 들 수 있다.[8] 물론, 같은 논리로

8)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Routledge, 1990, pp. 110-111.

남성들도 어머니나 형제, 남성 파트너를 잃어버리고 멜랑콜리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손실에 대해 남성들은 그 후 남성주도 사회로부터 이를 보상할 만한 큰 지원을 받는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 지배적인 불평등한 사회관계에서 중복된 고통을 겪게 된다. 즉, 먼저 동성애 및 금기적 관계를 부인하면서 발생하는 고통, 그리고 이성애적 역할을 완전히 받아들인 후에도 남성 지배적 사회에서 소수자 또는 억압된 지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 발생하는 고통이 그것이다.[9)]

젠더 멜랑콜리아는 두 가지 추가 요소로 인해 악화할 수 있는데, 인종 및 탈식민지 멜랑콜리아가 그것이다.[10)] 인종 멜랑콜리아는, 그 사회의 주류 인종 그룹의 구성원으로 태어나지 않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발생한다. 하지만, 소수 인종으로 태어난 여성은 젠더 멜랑콜리아에 더해서 중첩적인 멜랑콜리아 경험을 갖게 된다.[11)]

탈식민지 멜랑콜리아는, 식민제국을 잃은 식민주의자들이 느끼는 억압된 슬픔을 의미한다(Gilroy, 2005). 탈식민지 멜랑콜리아의 개념은, 영국 백인이 식민지 국가를 잃어버린 슬픔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 Gilroy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멜랑콜리아로 인해 영국 백인들은, 이전 식민지의 사람들을 자신들의 사회 구성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 식민지에서 온 이민자들도 백인 다수파로부터 외부인 또는 다른 사람으로 다뤄지는 과정에서 탈식민지 멜랑콜리아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12)]

---

9) Eng, David L, "Melancholia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5(4), 2000, p. 1278.

10) Gilroy, Paul, *Postcolonial Melanchol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p. 105.

11) Eng, David L. and Shinhee Han, *Racial Melancholia, Racial Dissociation: On the Social and Psychic Lives of Asian Americans*, Duke University Press, 2000, pp. 51-55.

12) Gilroy, Paul, *Postcolonial Melanchol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5, p.

글로벌화는 다양한 형태의 이주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젠더 멜랑콜리아를 겪는 여성들이 이에 더하여 인종 및 식민지형 멜랑콜리아를 중첩적으로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13] 또한,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이들은 이러한 멜랑콜리아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황에 더욱 공감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류 콘텐츠의 여성보편주의는 다양한 멜랑콜리아를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여성 팬들에게 해방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류 팬덤은 멜랑콜리아를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중첩적 멜랑콜리아를 겪을수록 한류의 여성보편주의가 제시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더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한류에서 여성보편주의 콘텐츠가 등장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것은 최소한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케이팝의 경우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성 아이돌 그룹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 아이돌 그룹이 남성 그룹 못지않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각 기획사가 여성 아이돌 그룹의 보편적이고 완성된 아름다움에 더욱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드라마의 경우는 한국 드라마 작가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데, 가부장적 유교 문화의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 작가들은 위에서 설명한 젠더 멜랑콜리아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극복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14]

100.

13)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들은 젠더 및 인종 멜랑콜리아를 같이 겪고, 프랑스에 이민 간 모로코 여성의 경우, 젠더, 인종, 그리고 식민지형 멜랑콜리아를 동시에 느낀다고 볼 수 있다.

14) Oh, Ingyu, Hyun-chin Lim, and Wonho Jang, "What is Female Universalism in Hallyu?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Paper presented at 118th ASA Annual Meeting, Philadelphia*, 2023, p. 18.

〈표 2〉 2015년 이후 한국 드라마 중 여성작가의 비율

	총 드라마 수	여성작가 드라마	비율
시청률 15% 이상 드라마 수	60편	50편	83.33%
넷플릭스 TOP 100 한국 드라마 수	10편	7편	70.00%

출처: 저자 직접 작성

위의 〈표 2〉를 보면, 2015년 이후 시청률 15% 이상 드라마와 넷플릭스 TOP 100 한국 드라마에서 여성 작가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태양의 후예〉 〈도깨비〉 〈더 글로리〉의 김은숙, 〈시그널〉 〈킹덤〉의 김은희, 〈나의 아저씨〉의 박혜영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라 할 수 있다.

III. 한류 콘텐츠에서의 여성보편주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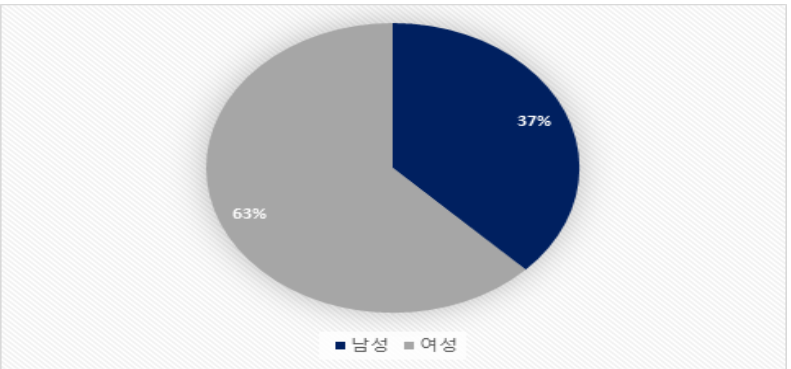
1. 초기 한류 콘텐츠의 여성보편주의

한류의 초창기부터 여성보편주의가 주류 콘텐츠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류의 초기 전개 과정에서도 여성보편주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드라마에서의 여성보편주의는 〈대장금〉에서 주인공 장금이의 역할이다. 장금이는, 남존여비의 봉건적 체제 하에서 궁중 최고의 요리사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어의를 비롯한 수많은 남자 의원들을 물리치고 임금 주치의가 된다. 주인공 이영애는 단독 주연으로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드라마의 성공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다. 이 드라마는 일본과 중국, 심지어 아랍권의 국가에서 크게 흥행한 대표적인 초기 한국 드라마이다. 이란에서의 이 드라마 시청률이 88%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란 전체에서의 이 드라마의 인기를 말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대장금〉의 여성보

편주의가 이슬람 여성들의 멜랑콜리아를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15)]

케이팝의 경우는 〈소녀시대〉가 대표적이다. 초기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은 HOT, 젝스키스, GOD, 신화 등 남성 아이돌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당연히 초기 케이팝 팬들은 여성 팬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남성 그룹의 경우 병역문제가 항상 아이돌 그룹의 지속성의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연예기획사에서는 병역문제가 없는 여성 아이돌 그룹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소녀시대〉가 그 답을 주었다. 〈소녀시대〉에 대해서도 여성 팬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녀시대 콘서트의 주된 관객은 여성 팬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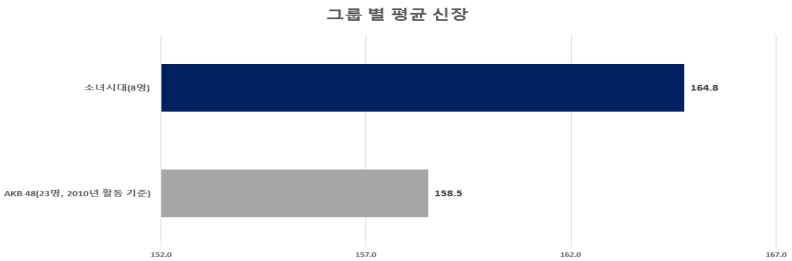
〈그림 1〉 2015년 소녀시대 콘서트 예매율 성별 비교

출처: 인터파크 티켓 – 티켓 예매정보(GIRLS' GENERATION 4th TOUR – Phantasia –, 2015년 11월 21일 한국 공연)

이러한 소녀시대의 인기는 완성된 노래와 춤을 보여주는 아티스트의 모습에 더하여 당당하고 보편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15)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젠더 멜랑콜리아가 강한 지역으로 유교 및 이슬람 영향권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2〉에서 보이듯이 소녀시대 멤버들의 평균 시장은 당시 최고 인기의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AKB48〉의 평균신장보다 6cm 이상 크다. 이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구적 모습 보여줌으로써 하이브리드 경향을 보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16]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완전히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고, 한류의 성공에 혼종성이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설명은 여전히 왜 여성 팬들이 남성 팬들보다 더 소녀시대를 더 지지하였는가에 대해 답할 수가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 팬덤을 소녀시대가 보여준 보편적인 신체적 아름다움과 완성된 예술성에 전 세계의 여성 팬들이 반응한 것으로 해석한다.[17]



〈그림 2〉 소녀시대와 AKB48 평균신장 비교(2010년 활동기준)

출처: 네이버 프로필 및 AKB48 홈페이지 프로필(https://www.akb48.co.jp/) 참고

---

16) Jang, Wonho and Youngsun Kim, "Envisaging the Sociocultural Dynamics of 케이팝: Time/Space Hybridity, Red Queen's Race, and Cosmopolitan Striving", *Korea Journal* 53(4), 2013, p.27.

17) 〈소녀시대〉와 같은 케이팝 여성 그룹들의 모습과 안무에 대해, 성적인 자극을 주는 모습과 안무로 해석하고 이것이 한국 여성 아이돌 그룹의 특징이라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Jung, 2010, 2013). 하지만 Epstein은, "소녀시대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여성 아이돌 그룹과 달리,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Soft Power를 가진 여성의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는데(Epstein, 2015), 필자는 소녀시대의 여성 팬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 한류의 전개 과정에서의 여성 보편주의

〈대장금〉에서 나타난 여성보편주의는 그 후 드라마 〈시그널〉과 〈추리의 여왕〉에서 매우 잘 드러난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백인남성보편주의에서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역할을 백인 남성이 하게 되고, 이런 점에서 형사나 탐정의 역할은 대부분 남성 배우가 담당한다. 형사 콜롬보, 포와르, 그리고 셜록 홈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백인 남성 보편주의가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전 세계에서도 남성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본 형사 드라마 〈아이보(파트너)〉이다. 현재 〈시즌 22〉까지 방영된 이 드라마는 일본 형사 드라마 중 최고 인기를 누리는 것인데, 백인남성보편주의가 일본식으로 해석된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남성 형사물이 크게 히트하지 못하다가, 최고의 히트를 한 작품이 〈시그널〉과 〈추리의 여왕〉이다. 이 작품에서 여자 주인공들은 시리즈 전체를 이끌면서 합리적이고 용기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성보편주의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외에 여성보편주의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는 〈나의 아저씨〉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이지안은 가난한 환경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뿐만아니라, 자신의 상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옆에 남는 유일한 의리파 역할을 담당한다.[18]

케이팝의 경우도, 그 후의 여성 아이돌 그룹들은 〈소녀시대〉가 보여주었던 적극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여성의 이미지, 그러면서도 완성된 아티스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고 이것이 전 세계 여성 팬들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이

---

18) 이 작품은 여성보편주의가 페미니즘과 다른 점을 잘 보여준다. 주인공은 여성 집단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류 콘텐츠의 여성보편주의가 페미니즘의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처럼 그러한 의식 없이 도덕적으로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주인공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여성보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페미니즘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3〉 한류의 전개 과정에서의 드라마 여성보편주의

제목	방영 기간 (공개일)	시청률	OTT 순위	극 중 이름 (배우)	극 중 역할
시그널	2016.01.22. ~ 2016.03.12.	12.5%	N/A	차수현 (김혜수)	범죄를 해결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형사, 여성이 보조 역할을 하는 서양 추리 장르물과 달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힘쎈여자 도봉순	2017.02.24. ~ 2017.04.15	9.9%	N/A	도봉순 (박보영)	초인적인 능력으로 악을 처단하는 여성이 주인공인 히어로물
추리의 여왕 시즌 1, 2	2017.04.05. ~ 2017.05.25. 2018.02.28. ~ 2018.04.19.	11.6%	NA	유설옥 (최강희)	범죄 현장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주부
나의 아저씨	2018.03.21. ~ 2018.05.17.	7.4%	넷플릭스 일본, 대만, 한국 TOP 10 차트인	이지안 (이지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극 중 상사의 어려움을 끝가지 해결해주는 의리파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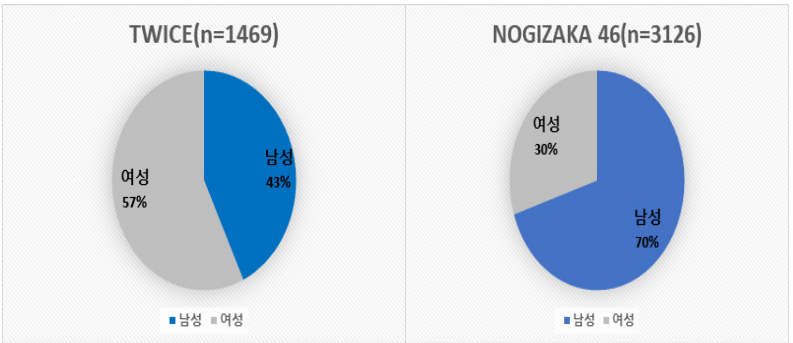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시청률 및 넷플릭스 TOP 10 차트(https://www.netflix.com/tudum/top10/)

팝 여성 아이돌 〈트와이스〉의 여성 팬덤은 전체의 57%인데, J-Pop 아이돌 〈노기자카 46〉의 여성 팬덤은 30%에 불과하다.

여기에 더하여 2016년에 데뷔한 〈블랙핑크〉는 삶을 주도하는 여성의 내러티브와 힙합 스타일의 랩과 안무를 통해 소위 '걸크러쉬' 음악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여성 아이돌 그룹의 완성된 아름다움이라는 여성보편주의에 자기 주도적이면서 확신에 찬 여성의 모습을 더하면서 여성보편주의를 한 단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블랙핑크〉의 새로운 여성보편주의 경향은 그 후 많은 여성 케이팝 그룹에게 영향을 미쳐서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19] 최

19) 케이팝 세대는 크게 1996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되고 등장한 1세대 아이돌 그룹

근 〈블랙핑크〉 가 2023년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랙핑크〉는 이미 세계 팝 시장의 주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다.[20]



〈그림 3〉 트와이스와 노기자카 46의 팬덤 성별 비교
출처: Line survey research(2020.9)(https://markezine.jp/article/detail/34728)

3. 주류 한류 콘텐츠로서의 여성보편주의

여성보편주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류 콘텐츠의 주류를 이루는 내용으로 더욱 발전했다. 아래의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넷플릭스에서 성공했던 한국 드라마의 많은 부분이 여성보편주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상영되었던 〈사랑

〈H.O.T.〉와 2005년 이후 〈원더걸스〉와 〈빅뱅〉 등이 데뷔하면서 등장한 2세대 아이돌 그룹, 2013년 이후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 등으로 대표되는 3세대 아이돌 그룹,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데뷔한 4세대 아이돌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4세대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는 〈엔하이픈〉,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등이 있으며 여성 그룹으로는 〈에스파〉, 〈르세라핌〉, 〈IVE〉, 〈뉴진스〉 등을 들 수 있다.

20) 코첼라 페스티벌은 매년 미국 캘리포니아 코첼라 밸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인데, 코첼라의 헤드라이너 공연은 세계 최고의 스타가 아니면 설 수 없는 무대이다. 예를 들어 2017년 레이디가가, 2018년 비욘세, 등이 헤드라이너였다는 점을 볼 때, 〈블랙핑크〉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의 불시착〉을 보면, 주인공 윤세리(손예진 분)는 남자 형제들의 음모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여성보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드라마는 당시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일본 한류를 선도하였다.

또한,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오징어게임〉은 주인공 이정재의 연기로 유명하지만, 모든 이기적 캐릭터들의 모습에서 오직 한 사람만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가 있는데, 극 중 지영 역할을 했던 여자 캐릭터로 친구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유일한 캐릭터이다. 이 점은 여성보편주의의 공감과 도덕성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표 4〉에 나와 있는 드라마의 내용들은 모두 한국적 상황에서의 여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극 중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기존 남성들의 직업을 여성이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역할들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 연모에서는 여성이 왕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는 한국 최대 로펌의 대표가 모두 여성이다. 특히 드라마의 내용 중에 법정에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대 로펌 변호사들이 "(여왕이 아니라) 왕이 직접 납시었네?"라고 서로 얘기한다.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와 〈대행사〉에서는 남녀 통틀어 가장 유능한 변호사와 광고대행사 이사로 여성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팝의 경우도 여성보편주의는 더욱 발전하여 케이팝 여성 아이돌의 주된 특징이 되었다.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의 노래에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러티브가 뚜렷하게 들어난다. 예를 들어 〈르세라핌〉의 "Antifragile"이나 〈뉴진스〉의 "Hype Boy" 등의 노래에서는 여성 화자가 자신의 의지를 걸크래시적인 퍼포먼스로 보여 준다. 이 같은 특징은 IVE나 다른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 외에도, 위에서 논의해왔던 일반적인 여성보편주의적 특징이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에서도 공통적으로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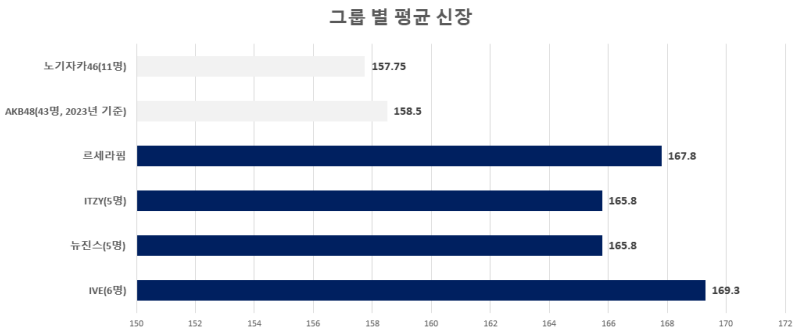
〈표 4〉 여성보편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최근 한국 드라마

제목	방영 기간 (공개일)	시청률	OTT 순위	극 중 이름 (배우)	극 중 역할
사랑의 불시착	2019.12.14. ~ 2020.02.16.	21.6%	OTT 종합 월드와이드 4위	윤세리 (손예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형제들로부터 회사를 지켜내는 CEO 역할
오징어 게임	2021.09.17.	NA	글로벌 1위 (9주 연속) * 에미상(최우수 드라마 시리즈, 남우주연상 등 수상) (프라임타임 에미상 2022)	지영 (이유미)	남들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이기적 생존게임에서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오직 한 사람의 이타적 캐릭터로서의 여성
연모	2021.10.11. ~ 2021.12.14.	12.1%	아시아 국가 10주 연속 TOP10 *에미상 최우수 텔레노벨라 수상 (2022)	이휘 (박은빈)	왕세자로 변장한 뒤 용기와 지혜를 발휘하여 왕이 된 여성
마이 네임	2021.10.15.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 51위	윤지우 (한소희)	기존 느와르물과 다르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자신의 복수와 악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2.06.29. ~ 2022.08.18	16.4%	넷플릭스 누적 시청 시간 6위	우영우 (박은빈)	장애(자폐 스펙트럼)를 가졌지만, 변호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다른 변호사보다 우월한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
왜 오수재인가?	2022.06.03. ~ 2022.07.23	11.4%	-	오수재 (서현진)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능력을 기르고, 그 능력과 처세를 이용해 복수를 성공
대행사	2023.01.07. ~ 2023.02.26.	17.3%	넷플릭스 3월 공개 후 10위 차트인	고아인 (이보영)	어렸을 적 고난과 학력이라는 장벽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여성

출처: 네이버 시청률 및 넷플릭스 TOP 10 차트(https://www.netflix.com/tudum/top10/)

견되다. 예를 들어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의 평균 시장은 여전히 매우 높다. 〈그림 4〉에서 나타나듯이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의 평균 신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아이돌 그룹보다 7cm-12cm 정도 더 크다. 즉,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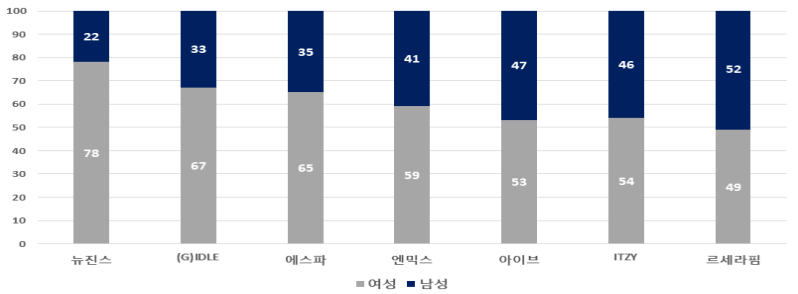
고 여성적인 모습보다는 보편적인 신체적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보편주의의 특징이 여전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림4〉 케이팝 4세대 아이돌 그룹과 일본 아이돌 그룹의 평균신장 비교

출처: 네이버 프로필 및 AKB48(https://www.akb48.co.jp/) 프로필, 노기자카46(https://www.nogizaka46.com) 프로필 참고

또한,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4세대 아이돌 그룹의 팬덤 성별을 보더라고 〈르세라핌〉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 팬덤의 수가 남성 팬덤의 수를 넘어선다. 심지어 뉴진스의 경우는 여성 팬덤이 78%에 이르고 있다. 이것 역시 케이팝 여성 아이돌 그룹의 완성된 미와 보편적 아름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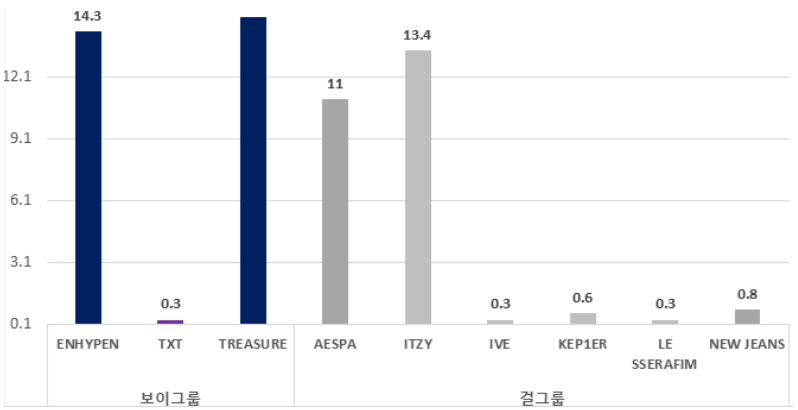
단위: %

〈그림 5〉 4세대 아이돌 그룹의 성별 팬덤

출처: 알라딘,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 “6각형 스탯의 4세대 아이돌이 온다.”, 2022.10.11.

에 많은 여성 팬들이 반응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케이팝의 여성보편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4세대 케이팝의 특징으로 대표적 아이돌 그룹 중 여성 그룹의 활약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6〉은 4세대 아이돌 그룹 중에서 〈Spotify 글로벌 차트〉에 진입한 아이돌 그룹과 그들의 진입 속도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4세대 케이팝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서 데뷔 후 〈Spotify 차트〉에 진입한 유명 아이돌 그룹의 수는 남성 그룹이 3팀인데 반해, 여성 그룹은 6팀에 이르고 있다.



단위: 개월

〈그림 6〉 4세대 아이돌 그룹의 〈Spotify 글로벌 차트〉 진입 기간 비교

출처: SPOTIFY,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 “6각형 스탯의 4세대 아이돌이 온다.”, 2022.10.11.

또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성공 속도가 남성 아이돌 그룹을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그룹은 〈TXT〉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 년이 넘어서야 〈Spotify 글로벌 차트〉에 진입했지만, 여성 그룹은 〈ITZY〉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 년 미만에 글로벌 차트에 진입하였다. 심지어 〈IVE〉를 비롯한 네 개의 여성 그룹은 데뷔 후에 한 달 이내에 차트에 진입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케이팝에서의 여성 아이돌 그룹은 남성 팬덤보다 여성 팬덤에서 그 인기가 더욱 높다는 점, 그리고 여성 아이돌 그룹의 완성도 높은 예술성, 자기 주도적 걸크러쉬 퍼포먼스 등은 케이팝에서의 여성보편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4세대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남성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넘어 선다는 사실은, 여성보편주의가 4세대 케이팝의 주류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여성보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한류 콘텐츠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고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여성보편주의는 한류 콘텐츠에서 표현되고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공감을 보유한 여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백인남성보편주의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백인 남성이 서구 대중문화 콘텐츠를 주도하였다면, 한류에서 나타나는 여성보편주의는 합리적이면서도 공감적인 여성, 용감하면서도 완성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여성들이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주역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보편주의는 한류 팬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특히 유용하다. 이 연구는 프로이드와 버틀러 등에 의해 제시되었던 멜랑콜리아의 개념을 적용하여 한류 콘텐츠가 왜 전 세계 여성들에게서 인기가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즉, 전 세계 여성들이 공유하는 젠더 멜랑콜리아, 소수민족이 공유하는 인종 멜랑콜리아, 그리고 식민지를 경험한 국민들이 공유하는 탈식민지 멜랑콜리아의 개념을 제시하고, 한류 여성 팬들은 이 중 하나 이상의 멜랑콜리아를 경험하고 있고 한류 소비를 통해 이러한 멜랑콜리아를 해소하고 극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에서 나타난 다양한 여성보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류의 전개 과정에서 여성보편주의가 한류 콘텐츠의 중심이 되어 가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의 한국학 연구가 외국의 이론이나 개념들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 연구가 제시하는 여성보편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은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한 개념들이 서구 및 국제 학계에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왜 한류에서 여성보편주의가 시작되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케이팝의 경우 남성 아이돌 그룹의 병역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여성 아이돌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젠더 및 식민지형 멜랑콜리아를 창의적으로 극복하는 한류 드라마 여성 작가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 설명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향후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교보증권리서치센터, 『6각형 스텟의 4세대 아이돌이 온다』, 교보증권리서치 보고서, 2022.

김미라, 「TV드라마 〈마인〉의 여성주의 서사 -가부장제 클리셰의 파기와 질서의 전복-」,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21권(11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김수정·양은경, 「동아시아 대중문화물의 수용과 혼종성의 이해」, 『한국언론학보』, 제50권(1호), 한국언론학회, 2006.

오현석, 「혼종성 이론에서 바라본 일본의 한류」, 『일본학』, 제45권, 동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이수안, 「유럽의 '한류'를 통해 본 문화혼종화 - 케이팝 열풍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2권(1호), 한독사회과학회, 2012.

이희진, 「중국인의 한국드라마 시청이 문화유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한류호감 및 문화근접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82권, 중국학연구회, 2017.

정윤경·이기태, 「이질 문화권 수용자의 한국 영상물 이용과 문화적 근접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9권(4호), ㈜에스비에스, 2011.

장원호·김익기·송정은, 『한류와 아시아 팝문화의 변동』, 푸른길, 2014.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Routledge, 1990.

_____, Bodies that Matter: On the Discursive Limits of Sex, Routledge, 1993.

_____, "Melancholy gender—refused identification", *Psychoanalytic Dialogues* 5(2), Taylor & Francis, 1995.

Butler, Judith, Ernesto Laclau and Slavoj Žižek,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Verso, 2000.

Chua, Beng H. and Kōichi Iwabuch (Eds), East Asian Pop Culture: Analyzing the Korean Wave,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8.

Cuningham, Henry, "Sherlock Holmes and the case of race", *Journal of Popular Culture* 28(2), Blackwell Publishing, 1994.

Eng, David, L., "Melancholia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25(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Eng, David L. and Shinhee Han, Racial Melancholia, Racial Dissociation: On the Social and Psychic Lives of Asian Americans, Duke University Press, 2019.

Epstein, Stephen and Rachael M. Joo, "Multiple exposures: Korean bodies and the transnational imagination", The Asia-Pacific Journal 10(33.1),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Epstein, Stephen, "Into the New World: Girls' Generation from the Local to the Global" in Choi, Jungbong and Roald Maliangkay, K-Pop - The International Rise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Routledge, 2015.

Epstein, Stephen and James Turnbull, "Girls' generation? Gender (dis)empowerment and K-Pop" In Kyung Hyun Kim and Youngmin Choe (Eds.), The Korean Popular Culture Reader, Duke University Press, 2014.

Gilroy, Paul, After Empire, Routledge, 2004.

_____, Postcolonial Melancholi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4.

Iwabuchi, Koichi, "Japanese popular culture and postcolonial desire for 'Asia' " In Allen, Matthew and Rumi Sakamoto(Eds.), Popular Culture, Globalization and Japan, Routledge, 2006.

_____, "Korean Wave and inter-Asian referencing" In Kim, Y. (Ed.), The Korean Wave: Korean Media Go Global, Routledge, 2013.

Jang, Wonho, Ik Ki Kim, Kum Ju Jo and Jung Eun Song, "Multi-dimensional dynamics of Hallyu in the East-Asian reg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3),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12.

Jang, Wonho and Byung Min Lee, "The Glocalizing Dynamics of the Korean Wave", Korean Regional Sociology 17(2), *Korean Regional Sociology Association*, 2016.

Jang, Wonho and Youngsun Kim, "Envisaging the Sociocultural Dynamics of K-Pop: Time/Space Hybridity, Red Queen's Race and Cosmopolitan Striving", *Korea Journal* 53(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3.

Jenkins, Henty,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Routledge, 1992.

_____, "Fandom studies as I see it", *Journal of Fandom Studies* 2(2), Intellect, 2014.

Jung, Eun-Young, "Playing the Race and Sexuality Cards in the Trans-national Pop Game: Korean Music Videos for the US Market", *Journal of Popular Music Studies* 22(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Jung, Eun-Young, "K-Pop female idols in the West: Racial imaginations and erotic fantasies" In Youna Kim, (Ed.), The Korean Wave: Korean Media Go Global, Routledge, 2013.

Kim, Gooyong, "Between hybridity and hegemony in K-Pop's global popularity: A case of Girls' Generation's American Debut",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1, USC Annenberg Press, 2017.

Kim, Gooyong, "K-Pop Female Idols as Cultural Genre of Patriarchal Neoliberalism: A Gendered Nature of Developmentalism and the Structure of Feeling/Experience in Contemporary Korea", Telos

184, Telos Press, 2018.

Lister, Ruth, "A differentiated universalism", In Campling, J. (Ed.),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Palgrave, 2003.

Lopes, Paul, Art Rebels: Race, Class and Gender in the Art of Miles Davis and Martin Scorses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9.

Luo Hong and Laurina Zhang, "Scandal, Social Movement and Change: Evidence from #me too in Hollywood", *Management Science* 68(2), Institute for Operations Research, 2020.

Lyan, Irina and Alon Levkowitz, "From holy land to 'Hallyu Land': The symbolic journey following the Korean wave in Israel", *Journal of Fandom Studies* 3(1), Intellect, 2015.

Marinescu, Valentina, The Global Impact of South Korean Popular Culture: Hallyu unbound, Lanham, Lexington Books, 2014.

Nelson, Dana D., National Manhood: Capitalist Citizenship and the Imagined Fraternity of White Men, Duke University Press, 1998.

Oh, Chuyun, "Queering spectatorship in K-Pop: The androgynous male dancing body and western female fandom", *Journal of Fandom Studies* 3(1), Intellect, 2015.

Oh, Ingyu, "Torn between two lovers: Retrospective learning and melancholia among Japanese Women", *Korea Observer* 42(2),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011.

Oh, Ingyu and Wonho, Jang, "From globalization to glocalization: Configuring Korean pop culture to meet glocal demands", Culture and Empathy 3(1-2), The World Association for Hallyu Studies, 2020.

Oh, Ingyu, Hyun-chin Lim and Wonho Jang, "What is Female Universalism in Hallyu?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Exploration", Paper presented at 118th ASA Annual Meeting, Philadelphia, 17-21

Aufust 2023.

Shim, Doobo,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1), SAGE, 2006.

Yang, Jonghoe, “The Korean wave (Hallyu) in East Asia: A comparison of Chinese, Japanese and Taiwanese audiences who watch Korean TV dramas”, *Development and Society* 41(1),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2012.

Yoon, Hesu and Hans Schattle, “The Gangnam style phenomenon as a global manifestation of hybridity”,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8(2),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17.

〈ABSTRACT〉

Female Universalism in the Context of Hallyu
- A Focus on Drama and K-Pop -

Jang, Wonho

This study introduces a new concept called “Female Universalism” and explores how this concept has been expressed and developed in Hallyu content. Female Universalism can be considered a concept that contrasts with the so-called “White Male Universalism,” portraying wise and empathetic representation of women in cultural content. In other words, while White Male Universalism contends that white male represent humanity as a rational and just group, Female Universalism proposes that women represent humanity though beauty, wisdom and empathy.

In so doing, the study applies the concept of melancholia, as presented by Freud and Butler, to explain the spread of Hallyu, arguing that female Hallyu fans alleviate this melancholia through the consumption of Hallyu. The paper argues that this is one of the significant factors in the global spread of Hallyu. The research illustrates various expressions of Female Universalism in the development of Hallyu and suggests that Female Universalism is now becoming a central aspect of Hallyu content.

Furthermore, the study is significant in offering a new direction for Korean studies. While most of the previous Korean studies mainly apply foreign theories and concepts to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indicated the

possibility of concepts developed in the Korean context influencing Western and international academia in return.

Key Words : Female Universalism, Hallyu, Melancholia, K-Pop, Drama, Korean Studies